

고독한 천재들이 세상과 맺는 은밀한 통로

영문학을 빛낸 서간문학

이태동 | 서강대 영문과 교수

편지쓰기는 16세기 이전에는 주로 공문서에 사용됐다. 사적인 내용이 담긴 편지쓰기는 18세기에 와서야 이뤄졌다. 편지쓰기가 문학적 위상을 확보한 것은 사무엘 리처드슨에 이르러서였다. 서간체로 씌어진 《파멜라》가 대중적인 성공을 거뒀던 것이다.



서간체 소설 《파멜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사무엘 리처드슨.

편지 형식은 인간이 문자를 발명하면서부터의 사전달 수단이 됐다. 그래서 16세기와 그 이전까지 서양의 편지쓰기는 정치·경제·외교에 관한 공문서 형식에서 주로 사용됐다. 그럼에도 편지 형식은 기타 다른 문제, 즉 가족이나 사랑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당시 사적인 편지 형식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고, 상대적으로 제한된 영역에 한정됐다. 그 후 다양한 사회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일상적인 삶의 문제에 대한 소식과 의견을 나누거나 전달하는 수단으로 편지 형식을 사용했다. 당시의 편지쓰기는 우리들이 전화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18세기에 와서, 편지쓰기 형식이 페미니스트의 영향에 따라 사회적으로 증대하면서 여성들은 그것을 일상적인 사교생활 및 긴밀한 대화들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용도를 확대한다. 편지쓰기가 문학적 형식으로 사용된 것은 그것이 공적인 성격에서 사적인 성격으로 옮겨옴에 따라 시작됐다.

18세기에 소설쓰기의 한 갈래로 자리잡아

서간문체로 소설쓰기에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은 18세기 영국작가 사무엘 리처드슨이다. 그의 작품 《파멜라》가 9개국 언어로 번역돼 널리 읽힐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은 그 작품의 내용도 내용이라니와 서간체 형식의 호소력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이 작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설의 주인공은 앤드류 파멜라라는 15세의 하녀다. 그녀가 소설 무대에 등장할 때, 그녀가 머무는 집의 마나님이 죽게 된다. 그러나 죽은 마나님의 아들인 미스터 B가 그녀를 마음에 두게 돼, 그녀가 자신에게 관심을 갖도록 강요한다. 파멜라는 그가 가까이 오는 것을 뿌리쳤으나 그녀는 자기가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그 딜레마는 동정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행복한 것이었다. 파멜라가 미스터 B를 사랑하고, 미스터 B가 파멜라에게 구혼을 할 때까지, 그녀는 부모 집에서 주인 집으로 옮겨다니면서 부모와 애인에게 많은 편지를 쓴다. 제2부에서 파멜라는 편지쓰기를 통해, 비천한 태생이지만 미스터 B의 집안 사람들에게 그녀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한다. 그래서 그들은 파멜라 뿐 아니라 그녀가 속해 있던 계층에 대해서도 존

경심을 갖게 된다.

위와 같은 플롯을 성공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작가는 이 작품에서 작중인물들이 많은 편지를 쓰도록 한다. 이 작품에 나타나고 있는 편지쓰기는 작품을 센터멘탈하게 하지만 소설에 직접성을 부여해 독자들이 생생한 현실감을 느끼게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런 편지쓰기 형식은 작중 인물들이 감정을 유지하며 자기 자신의 모습을 충분히 갖추도록 허용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이런 사실이 가능한 것은 편지쓰기를 통한 대화, 일상적인 삶이 부정하는 감정적인 만족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친숙한 편지쓰기는 가슴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 속에는 영혼이 담겨 있다. 그래서 리처드슨은 “편지쓰기는 두 사람간의 우정의 시멘트이며, 좀더 순수하고 열정적인 개인적 대화”라고 말했다.

편지, 내면 비추는 가슴의 거울

이렇게 편지는 ‘가슴의 거울’이기 때문에 내면에 스쳐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다. 때문에 그것은 작가 자신의 내면 생활뿐만 아니라,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과 편지 속에서 논의되는 사람들에 대한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오리엔테이션 성격을 띄게 된다. 비록 리처드슨 이후의 영문학 작품에서 편지쓰기 형식이 서서히 사라지게 됐지만 편지쓰기는 고독 속에서 자신의 순수한 생각을 상대방에게 뒤뜰림 없이 전달하는 수단이 돼 작가와 시인들은 깊은 우정 관계에 있는 지인들에게 많은 편지를 썼다.

20세기에 들어, 버지니아 울프와 제임스 조이스 같은 작가들이 쓴 편지는 큰 책으로 몇 권을 묶을 수 있는 분량이었다. 많은 분량이 아니더라도, 릴케의 《젊은 시인들에게 쓴 편지》는 고독 속에서 사는 시인이 외부세계와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시적 통로였다.

디지털 시대에서 개인적이고 사적인 내면세계를 비추주는 거울인 편지쓰기 양식의 글을 잃어버리는 것은 또 하나의 인간성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